

# מִתְּפִלָּה (책의 집)

##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한동일 씀, 인티



제게는 무척이나 힘든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 10년 넘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나아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무척이나 힘들고 괴로운 존재가 아니라 나의 '복'이라고 생각되었어요. 10년 가까이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했는데, 정작 변한 것은 그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후 부터는 그를 만나야 할 때 복을 만나러 가고 복을 찾으러 간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복하는 자는 주님의 보복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그의 죄를 엄격히 헤아리실 것이다.  
네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네가 간청할 때 네 죄도 없어지리라.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죽을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가 그의 죄를 사해줄 수 있겠느냐?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파멸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여라.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집회서 28.2-7)



제51권 30호

2025년 7월 27일(성령강림절 후 일곱 번째 주일)

### 제109회 총회주제 :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안산교회는** 1974년 4월 여천군 월내리에서 설립 후 안산동으로 이주하였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여수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앞선 세대를 섬기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꿈꾸는 공동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남 여수시 안산길 172-10 59662

교회 (061) 691-7315 Fax (061) 691-7320 목양실 (070) 4292-8377

# † 안산가족 소식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우리교회의 예배를 소개합니다.



- **주일 낮 예배:**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를 읽으며 예배드린 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 **찬양예배:** 매월 첫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 **수요기도회:** 매일성경 '그룹 큐티 나눔'을 교재로 활용합니다.
- **새벽기도회:** 매일성경 성서일과표를 활용하여 주 4회(화-금) 모입니다.
- **일상기도:** 다락방과 중보기도 제목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1. **예배 ① 주일예배:** 오늘은 성령강림절 후 일곱 번째 주일입니다.  
(공동기도문과 지난 주일 설교 요약문은 사무실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모임 ① 정기 당회:** 낮 예배 후, 담임목사실
3.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오늘까지, 교회
4. **성경 필사:** 요한복음에 이어 '창세기' (메시지성서)를 시작합니다.
5. **여름휴가 기간 신앙 실천:** '인생 말씀' 찾기에 도전해보세요.
6. **중보기도 제목**
  - 코로나19 극복과 교혼(공존, 공생)을 잊지 않기를
  -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및 한반도의 평화와 빈부격차, 이념 및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하여
  - 한국교회의 회복과 사명 감당을 위해
  - 동역자들(방글라데시, 필리핀, 동백사랑교회, 여은교회)을 위하여
  - 노년의 평화와 고난 당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 † 신앙실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살고 싶고 따르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나요?  
그 구절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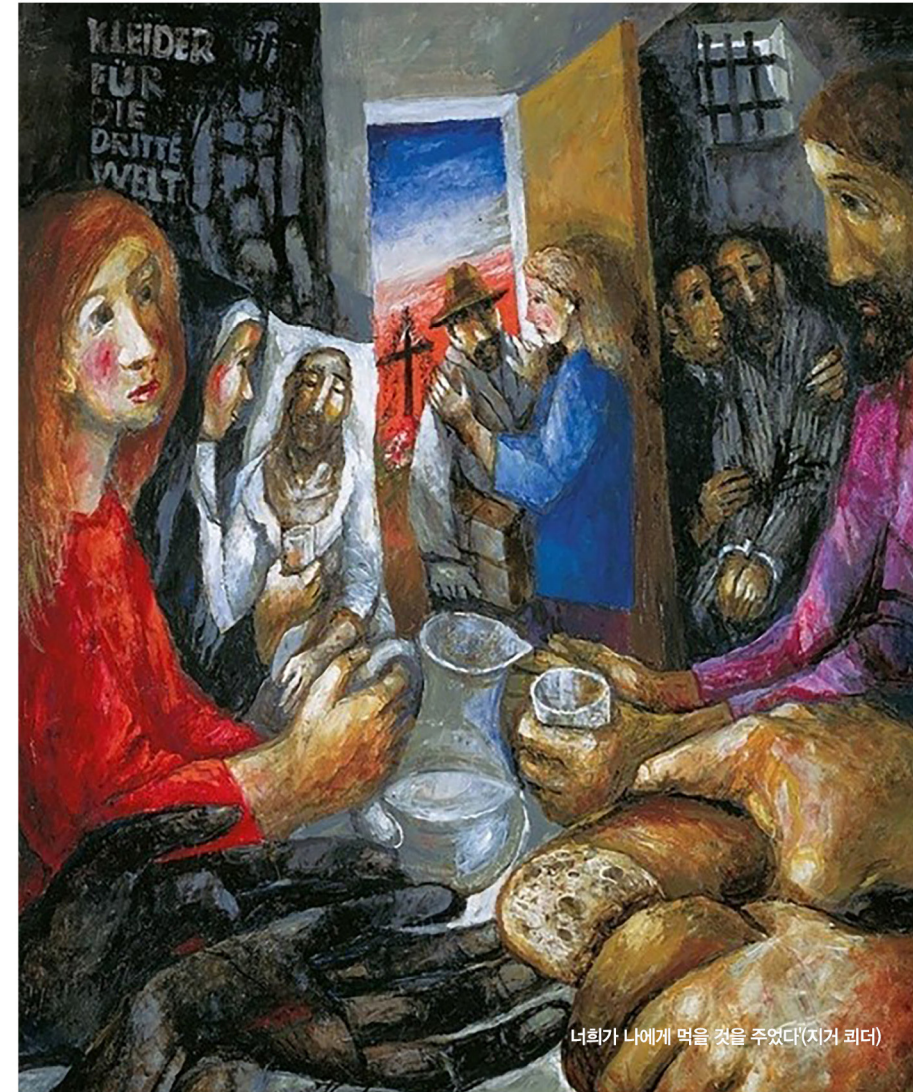
## † 예배 및 자치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선교회	연령
주일낮예배	오전 11시	본당	아브라함	남성교우
수요기도회	오후 7시	소예배실	에스터	61-70세 여성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소예배실	드보라	51-60세 여성
아동부예배	오전 9시	소예배실	마리아	41-50세 여성
청소년부예배	오전 9시	청소년부실	하나	40세까지 여성

YouTube 채널: 여수안산교회 | 온라인 헌금계좌: 신협 061-691-7315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평화의 동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교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지겨 쿼터)

# 주일예배 (성령강림절 후 일곱 번째 주일)

주일 오전 11시	인도 : 송 혁 목사
경배와 찬양	함께
* 입례송	주 찬양
* 예배의 부름	시편 66.1-4
* 송영과 기원	반주, 인도자
* 영광송	74장(2절 후, 간주)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참회의 침묵기도	함께
위로와 용서의 말씀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시교독	시편 85편(성서일과표를 보며)
감사찬송	288장(2절 후, 간주)
기도	이기도 목사
* 성경봉독	누가복음 11.1-4(신약 111쪽)
찬양	주 안에 기쁨 있네
말씀선포	내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결단의 찬송과 기도	413장(3절 후, 간주)
봉헌	함께
성도의 교제	함께
* 교제의 찬양	382장(4절)
* 축도	송 혁 목사

\*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 다음 주기도 - 민경오 장로

- \* 8월 안내위원 : 신대심, 손양선, 박선례, 최형미
- \* 8월 헌금위원 : 김인수
- \* 8월 주방봉사 : 9, 6구역

## 생명의 말씀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소서.  
 든든한 세 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누가복음 11.2-4/메시지성서)

## 수요기도회

오후 7시	인도 : 송 혁 목사
찬양	함께
기도	서영숙 집사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21.1-8(신약 420쪽)
말씀선포와 기도	새 하늘과 새 땅?
축도	송 혁 목사

## 다음 주기도 - 정희숙 권사

## 일상기도 (매일성경)

날짜(요일)	목상 본문	31일(목)	요한계시록 20.1-15
28일(월)	요한계시록 18.9-19	1일(금)	요한계시록 21.1-8
29일(화)	요한계시록 18.20-19.10	2일(토)	요한계시록 21.9-21
30일(수)	요한계시록 19.11-21	3일(주일)	요한계시록 21.22-22.5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여수지역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

# 지난주일 말씀

## 마리아의 지혜로운 선택

(누가복음 10.38-42)



[성서일과표/아모스 8.1-12, 시편 15.1-5, 골로새서 1.15-23, 누가복음 10.38-42]

주부들이 흔히 ‘돌아서면 밥때’라고 하지요? 제게는 ‘돌아서면 주일’입니다. 목사인 저는 속명적으로 선행 노릇을 해야 하기에, 때로는 배우는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선행 노릇이 아닌 학생의 자리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잔치나 이 목사님이 찬양 예배와 수요기도회를 인도할 때입니다. 그때 저는 오직 선생님의 발아래 앉아서 배우는 학생일 뿐입니다. 만일 그 시간에 담임목사인 내가 무엇을 덧붙여서 멋지게 마무리할까에 집중한다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되겠지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 관한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마르다라는 여성이 예수를 집으로 모셔 대접하느라 분주할 때,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서에서 ‘발아래에 앉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자리는 배움의 자리라 아니라 배우는 이들을 섬기는 곳이였지요.

성별에 따라 주어진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사회의 규범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로까지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마르다는 질투가 아니라 동생을 걱정하면서 그녀를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보내달라고 주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많은 일로 염려하느라 스스로 고생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한 가지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였으며, 그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하신 것이지요. 예수께서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신 말씀일까요?

인간인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인생은 ‘죽음’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한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피할 수도 없지요.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많은 일로 염려하며 떠돌고 있을 수 있을까요? 몹시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붙잡겠지요.

물론 죽음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기에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신 삶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종말인 동시에 창조의 완성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신비한 도구로 우리를 구원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서의 약속이니까요. 그러므로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곧 긴장을 놓치지 않고 삶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유한자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찬양’ 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네 생물과 24장로와 신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144,000명과 셀 수 없는 무리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찬양하는 모습을 구원의 완성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신화의 신들처럼 인간의 시중과 영광에 목말라서 찬양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자인 우리가 세상과 역사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욕기가 그것을 웅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선택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인간과 피조 세계의 구원에 필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르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며 노심초사하는 일들은 실은 도토리 키재기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자기만족과 완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지만, 정작 구원에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가 144,000명이라고 합니다. 숫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신앙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가 지파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요한은 그것을 지파별로 동일하게 12,000명씩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바울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역설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혜서는 “지혜의 시작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진실한 소망”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진리와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요? 예언자 아모스는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찾으셨는지요? 시편 지혜자는 노래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살름.